



Chapter 2

어떤 치과기공사가 될 것인가?

(2011-2013년 증례)

2011년 겨울 어느 날, 일기를 쓰기로 하다.

일반적인 치과기공소에서 보철을 만들기만 하던 시절을 벗어나 진료실과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게 되면서 기록을 시작하였다.

처음 진료실에서 shade taking하던 일을 잊을 수 없다.

그 때 환자, 치과위생사 선생님, 치과 원장님 세 분이 모두 저의 행동을 자세히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무언가 기대를 많이 하는 모습에 책임감이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다.

얼마 뒤 세팅하는 날이 되었고 다시 진료실에 가보니 약간 수정할 부분이 생겼고 수정 작업 뒤 모두 잘 됐다는 말씀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험을 했다.

그 후 진료실에서 여러 조연과 책을 보면서 치과기공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. 그 날 이후 치과기공사로서 책임감이란 부분에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다행히 주위의 많은 도움으로 잘 헤쳐 나가고 있다.

이일을 계기로 자신이 만든 보철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보고 생각하고 기록하여 반면교사 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.

CASE 6



개요

- 수복 부위 : #12, 11, 21, 22
- 사용 재료 : Full laminate
내화 모형 제작법
Noritake EX-3 powder build-up
- 30대 중반 여성

목표

- 전치부 심미성 회복



하얗고 가지런한 치열을 목표로 제작하였다.
생각보다는 지대치의 검은 색조가 나와서 차단이 어려웠다.



실제 임상에서 laminate를 한다면 삭제량이 많지 않다.



내화 모형에서 완성 후 마스터 모델에 시적해 보는 작업은 항상 마음이 떨린다.

CASE 7



개요

- 수복 부위 : #12, 11, 21
- 사용 재료 : Prettau Zirkonzahn frame
Noritake CZR powder build-up
- 25세 남성

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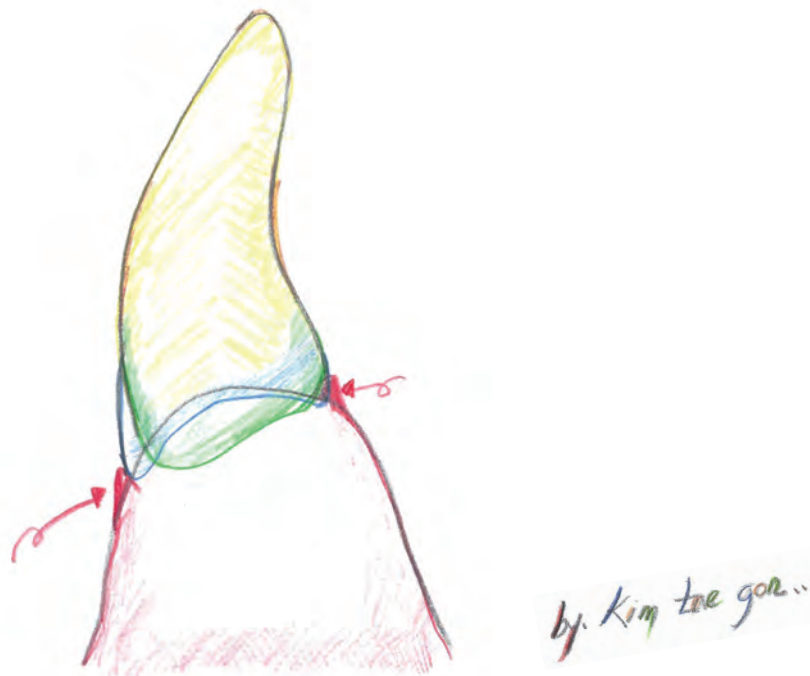
- #11 pontic 부위의 자연스러운 재현



초진 사진은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.
#11은 pontic이며 ovate 형태로 제작했다.



제작 후 3년 정도 지나서 비교적 최근에 구강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.
사랑니 통증으로 내원하신 김에 사진 촬영을 부탁드렸는데,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카메라 성능이 놀랍다.



무심히 구강 사진을 본다면 pontic의 존재는 눈치 채기 어렵다.
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그림에 초록색 line처럼 ovate한 형태의 pontic을 만든다.

CASE 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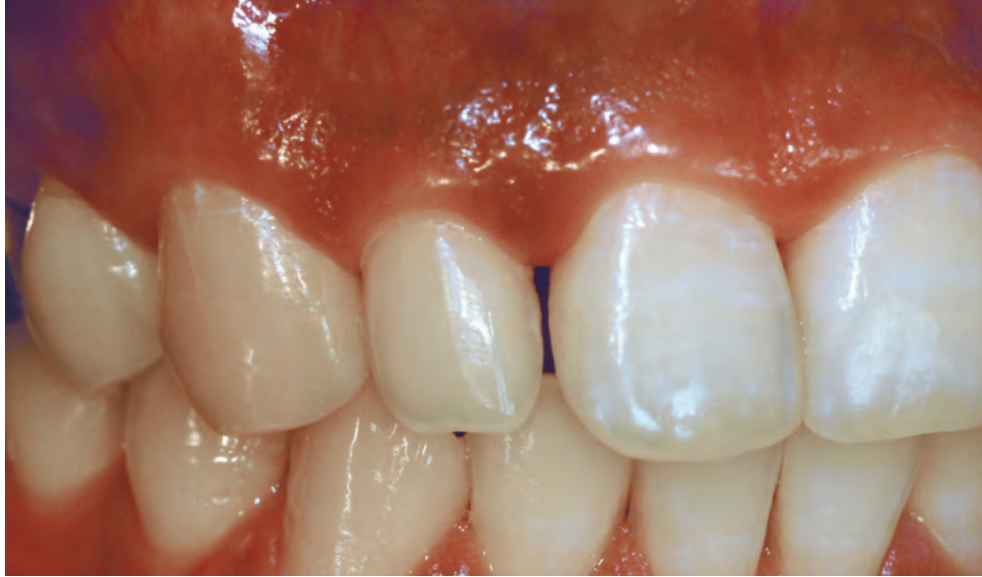


개요

- 수복 부위 : #12, 22 full laminate
- 사용 재료 : Press ceramic(e.max)
- 20대 중반 여성

목표

- Press ceramic의 다양한 활용 방안 시도



약간의 왜소치 경향으로 초진 시에도 #21, 22 공간이 있었다.
법랑질을 최대한 남기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지대치 형성을 시행하였다.